

‘걷기도시’ 영광군에 살며 보험료 할인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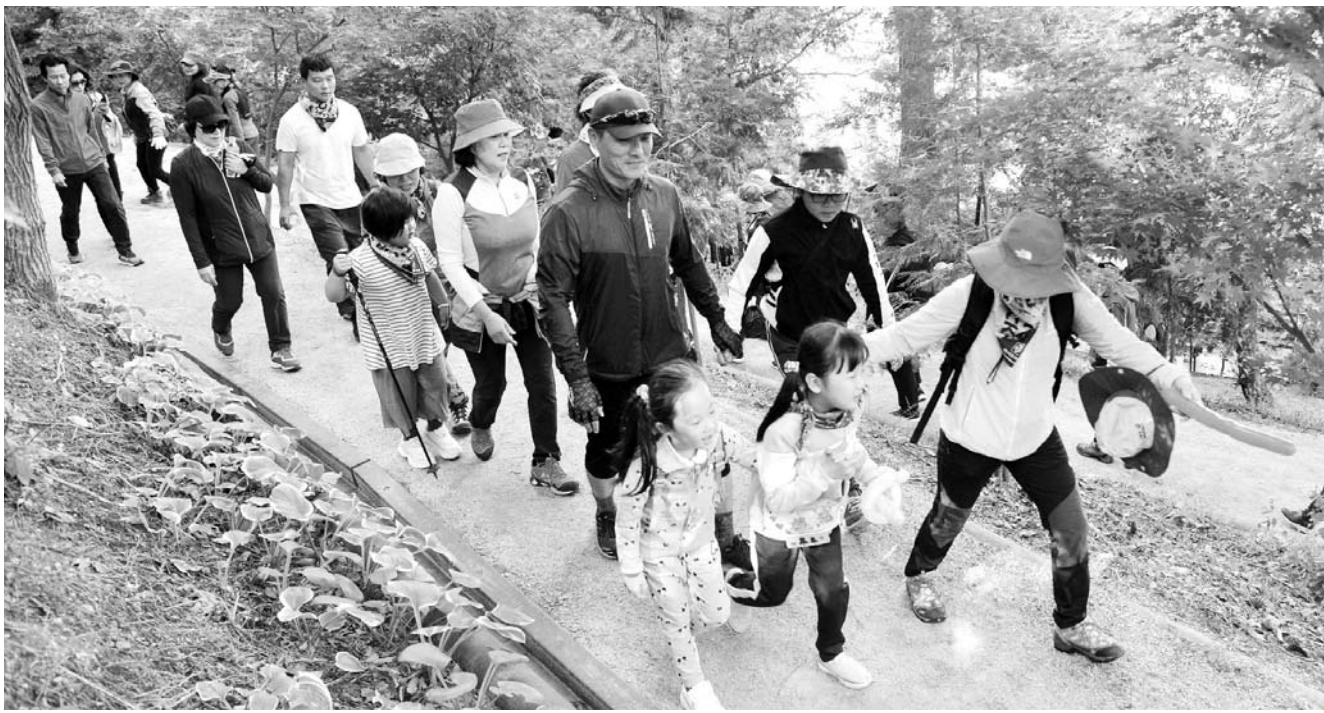
목표 걸음 수 달성엔 일부 환급
물무산 행복숲·우산공원 등
생활권 10분 거리 접근 용이
군민 건강 챙기기도 안정맞춤

국내 여러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건강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운동 중에서 ‘걷기’를 선택한 이유는 걷기가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누어서 걸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모로 효율적인 운동법이기 때문이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물무산 행복숲, 우산공원, 성산공원이 있다. 또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13분을 넘지 않는다.

흔히 걷기를 운동으로 접근하면 한 번에 1시간 또는 한 번에 5km 걷기와 같이 몰아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걷기도시’ 영광군이 군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앞장서 보험료 할인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걷기를 운동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루에 걷는 총량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좋다. 점심 먹고 우산공원이나 성산공원 걷기, 새벽이나 공휴일에 물무산 행복숲 숲속둘레길 걷기 등을 시도해 보면 좋다.

평지를 1시간 당 6km 전후의 빠른 걸음

으로 걸으면 5-6킬로 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영광군은 우산공원과 물무산 행복숲에 이어 성산공원에도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지형 숲길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지수는 올라가고 보험료는 내려가는 시대라며 영광군을 ‘걷기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함평군 제공〉

함평 청소년문화의집 최우수기관 선정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44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관리체계·지역특화 활동프로그램 등의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전체 시설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총점 98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지역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기

관에 선정되면서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장옥중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현판식을 열었다.

장옥중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함평군과 지역 유관기관들이 적극 지원해 준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전국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전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박영숙 함평교육장 함평명예군민 됐다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평 명예군민이 됐다. 박 교육장은 지난 27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함평 명예군민패’를 전달받았다.〈사진 왼쪽〉

1979년 교육계에 첫 발을 내디딘 박 교육장은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나주 문명초등학교 교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현장 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2018년 함평교육장으로 부임해 전남교육박물관 유치, 함평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 함평영재교육원·함평의국어체험센터 설립, 함평 역사·문화 바로알기 프로젝트, 함평교육사 발간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주민편익 지원사업 확대

지원조례 개정…공동빨래방 설치 등 사업비 1억7000만원 확보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최근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주민편익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편익을 지원하고, 공항건설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안군은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세탁기와 건조기 6대 등을 갖춘 코인용 공동빨래방을 설치하고, 농어촌 민박에 침구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항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원준 의원(비금·도초·흑산)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 등의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부의 공원위원회의 주요 결정인 철새보호대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먼저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영산강지구 용지매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협약

기후변화 대응 20.7km ‘숲 길’ 조성한다

신안군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영산강IV지구 용지 매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과 영산강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연계해 신안군 지도·압해읍 용수관로 부지를 활용,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이 취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로 숲 조

성도 함께한다.

신안군은 온실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20.7km의 숲길을 조성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래세대를 위해 녹색성장,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숲, 가로수 생활권 조성, 미세먼지 없는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Fire & Marine Insurance

SGI서울보증

AXA AXA 다이렉트 reinsurance / standards

AIG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